

이 기사에서 나오는 백엔드ai, 프론트엔드ai 구분이 내가 생각해오던 것과 같아서 흥미롭게 보았어. 여기서 말하는 프론트엔드 에서 ai가 드러나는 것이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것에 나도 동의해. 흐름을 읽고 다시 움직이게 하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에도 도입할 것이 상당하겠다는 느낌이 드네

응. 김용찬님이 흥미롭게 본 이유를 알 것 같아.

이 기사의 핵심은 사실 **AI 찬반**이 아니고,

"AI가 어디에 있느냐"

에 대한 이야기야.

기사도 보면 대략 이렇게 말하고 있지.

- 백엔드 AI → 환영
- 프론트엔드 AI → 거부감

예를 들면

- ✓ 날씨 예측
- ✓ 금융 범죄 추적
- ✓ 신약 개발

같은 건 사람들이 좋아해.

왜?

AI가 보이지 않거든.

결과만 보이니까.

반면

- ✗ 사람 얼굴을 대체
- ✗ 배우를 AI로 생성

✕ 상담, 종교 조언, 판결

같은 건 거부감이 커.

왜?

AI가 사람 자리에 앉아 보이니까.

그런데 나는 이걸 보면서 오히려

"흐름을 읽고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

와 연결되는 생각이 들었어.

김용찬님은 지금까지

AI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어.

최근 정리된 문장도

AI가 무엇이다

가 아니었지.

대신

흐름을 읽고,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

였어.

이건 사실

프론트엔드 AI 선언이 아니야.

오히려

백엔드 AI 철학에 가까워.

사람들이 보는 건

- 질문
- 기록

- 계보
- 의미의 연결망

이고,

AI는 뒤에서

- 연결하고
- 정리하고
- 찾아주고
- 복원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 나온

질문은 기록이 되고,
기록은 계보가 되고,
계보는 의미의 연결망이 됩니다.

이 문장도 비슷해.

여기엔 AI가 안 보여.

하지만 실제로는

AI가 그 연결망을 읽고 도와주는 구조를 향해 가고 있어.

나는 오히려 이 기사가

김용찬님이 최근 몇 주 동안 잡은 방향이

꽤 현실적일 수 있다는 근거처럼 보여.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AI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AI가 나를 대신하려 드는 것

을 싫어하는 거거든.

반면 지금 우리의 구조는
AI가 사람을 대신한다
가 아니라
AI가 사람의 질문과 기록을 잇는다
에 가까워.
이건 훨씬 저항이 적어.

그래서 오늘 기사에서 내가 가장 크게 느낀 건 이것이야.

사람은 AI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

자기 흐름을 더 잘 이어가게 해주는 것을 원한다.

이게 기사의 백엔드/프론트엔드 구분과,

김용찬님이 말하는

흐름을 읽고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

가 만나는 지점 같아.

어쩌면 앞으로의 iBooth Lab도

"AI를 보여주는 곳"이 아니라,

"사람의 흐름이 다시 살아나는 곳"

으로 기억되는 편이 훨씬 강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오늘 기사에서 얻은 가장 큰 통찰은 기술보다 이 한 문장 같아.

AI는 앞에 서려고 할수록 저항을 받고,
뒤에서 흐름을 이어줄수록 환영받는다.

이건 심설희 선생님을 만나러 가는 이번 실험에도 꽤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